

제약·바이오업계, 비만치료제 등 'K-CDMO' 경쟁력 다각화

삼성바이오로직스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등 투자
셀트리온 COMD 사업구상 본격화
유한화학 글로벌 빅파마 수주 확대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경쟁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생산 규모 확보에서 비만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의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발맞춰 다양한 차세대 의약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총 3조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조달 자금 중 대부분인 2조7062억원은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자금으로 쓰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안에 인수를 완료해 항체, 메신저 리보핵산(mRN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A), 항체·약물접합체(ADC)에 GLP-1 펩타이드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제2 바이오캠퍼스 증설 등을 통해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성장 축을 바탕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은 국내 K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셀트리온도 CDMO 사업 본격화를 구상하고 있다. 2024년 12월 100%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텔루션스를 설립하고 오는 2031년 매출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CDMO 전면 등판을 선언했다.

올해 3월에는 송도 4·5공장 및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에 1조2000억원 투자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의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의 DS 생산역량은 기존 31만 6000리터에서 57만 1000리터로 커진다.

또 생산 내재화로 원가율을 극대화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기동할 예정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기존 CMO 사업을 통해 1468억원을 기록하는 등 트랙레코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정통 제약사들은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은 글로벌 빅파마 대상 원료의약품(API) CDMO 사업을 확장한다. 올해 1분기 831억원, 2분기 912억원 등의 실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5월 미국 브릿지바이오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과 잇따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하는 등 확보된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고성장을 이어간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팜은 차세대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분야를 선점했다. 에스티팜의 올해 상반기 누적 연결 매출은 1755억원이다. 1분기 670억원, 2분기 1085억원 등으로 핵심 성장동력에 시동을 걸었다. /이철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1면 'D램 공세에 관세...'서 계속

美, 완제품 등 관세 검토 D램 생산라인 변수 부상

◆美 통상압박 수위 높아

이처럼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반도체에 적용하던 관세를 데이터센터용 서버와 노트북, 게임 콘솔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대상 확대와 함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7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이 현지 반도체 생산 규모에 비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생산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양사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D램 전공정 생산라인은 국내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하고 있지만 테일러 공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다. 미국 내 D램 생산라인은 아직 없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인디애나주에서 40억달러(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HBM 생산거점 착공식을 열었다.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국내에서 만든 D램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미국에서 패키징하는 후공정 시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지 생산 규모를 관세 혜택과 연계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시설 추가 투자 여부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韓,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5391만5741원

구매력 기준 연 6만1259달러
1위 아이슬란드... 10만605달러

우리나라가 '근로자 임금' 부문 주요국 비교에서 10년 사이 3계단 뛴 18위에 올랐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등을 차례로 제쳤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30일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의 작년 12개월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5391만5741원이었다. OECD는 34개

회원국의 각 통화단위 및 액수를 그대로 표기한 뒤 이를 다시 미 달러화로 변환해 비교했다. 특히 단순 변환이 아닌 각국 소비재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순위를 매겼다.

지난해 한국은 구매력 기준 연 6만1259달러로 18위를 차지했다. 명목임금이 아닌 ppp 기준이기 때문에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 환산치(3만9055달러)와는 차이가 크게 난다. 아꼈든 OECD 평균인 6만4809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5년도에도 격차를 크게 줄이진

못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서방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 수준을 따라잡았다. 2015년 일본에 처음으로 앞선 데 이어 2025년 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등을 따돌렸다.

일본(5만183달러)은 25위까지 처졌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탈리아(5만3864달러·24위), 스페인(5만7779달러·22위), 프랑스(6만483달러·20위), 뉴질랜드(6만896달러·19위) 등이 자리했다.

이 밖에, OECD 평균 내외인 6만 달러대를 기록한 나라는 스웨덴(6만1443달러

·17위)과 핀란드(6만3053달러·16위), 슬로베니아(6만3376달러·15위), 영국(6만6299달러·14위), 캐나다(6만7901달러·13위) 등이다.

1위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역대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긴 아이슬란드(10만605달러)였다. 이어 룩셈부르크(9만8530달러), 스위스(9만2285달러), 미국(8만6977달러), 네덜란드(8만136달러)가 2~5위에 각각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김나희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가입문의 **1666-9988**

*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